(가제)산을 보는 방법

김수한

로그라인

: 화가인 연우와 함께 살던 은주는 연우가 실종되자 연우를 찾기 위해 연우가 평소 이상 행동을 하며 말했던 장상을 탐색 산을 올랐으나 연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아픔과 삶을 이해하게 되었음에도 그녀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그녀의 그림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캐릭터

은주 - 화가인 연우와 함께 살던 은주는 연우의 실종신고를 하고 수색하며 그동안 연우가 느꼈을 아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된다.
연우 - 화가. 은주와 동거하고 있으며 은주의 가족을 받고있다가 집을 나가 실종된다.
해준 - 산악경찰로 한적한 시골동네로 발령받았다. 실종신고를 받고 연우를 수색한다.
노인 - ?

Plot

1. 검은 화면 속 불규칙한 발소리가 들린다. 이내 어둠속에서 달리고 있는 발이 보인다. 발을 따라가던 화면은 산속에서 달리고 있는 발과 교차 편집 된다가 코너를 도는순간 멈추고 점점 멀어지던 발의 주인의 모습이 보인다. 은주의 뒷모습이 파출소로 향한다.
2. 은주가 파출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출고있던 경찰이 깜짝 놀라 소리친다. 은주가 저런 발걸음으로 다가올 실종 신고를 한다. Cut to 경찰서 의자에 앉아 이야기 안한다며 중얼거리는 은주에게 경찰이 담요와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사건의 전말을 물어본다.
3. 은주의 플래쉬 연우는 화가이다. 어느날 아침 은주가 사워를 하고 나와 화가를 위해 창문을 열었을때 창밖에 온통이 짙은 채 산 정상을 바라보고있는 연우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다. cut to 아침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아 대화를 이어간다. 연우는 요즘 이상한 꿈을 꾸고있어 산의 정상에 오르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
4. 수색이 시작되고 산에서 연우를 찾고있는 은주에게 경찰이 다가와 연우에 대해 묻는다. 평소 연우와 관계, 대화 등을 질있었어 묻는 경찰에 지칠때쯤 연우의 꿈을 발견한다. Cut to 성폭행일수도 있다는 경찰의 말에 충분한 은주가 혼자서 산을 오르며 연우를 찾기 시작한다. 달리며 멘신 사과하는 은주의 모습과 연우의 모습이 교차 편집 된다.
5. 술을 마시고 돌아온 연우와 다투기 시작하고 결국 연우의 예술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은주 연우가 사과하며 집을 나간다.
6. 정신없이 연나를 외치며 산을 오르던중 안난 신비한 노인이 은주의 눈을 감겨준다.
7. 환상에 빠진듯 마치 연우가 꾸었다던 꿈을 꾼다. 그 속에서 연우를 만나주는 은주
8. 경찰차안에서 눈을 뜬 은주는 수색을 경찰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간다.
9. 집에 돌아서 연우의 방을 살피던 중 산을 그린 커다란 그림을 집어들고는 입구에서 잘 보이도록 걸어두고 문을 열고 나온다.

Scenario

Scene1. 어두운 거리 - 밤
멀리 가로등 불빛들이 줄지어 늘어져있고 누군가 달리는 듯 지면을 박차는 소리가 점점 빠르고 무겁게 울린다. 카메라는 그 발자국 오선지처럼 늘어져 있다. 갑자기 나뭇가지에 걸리는 소리와 함께 달리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 리드드의 미행이 들린다. 어둠속에서 달리는 발과 산속에서 달리는 발이 교차로 보인다.
발의 주인이 점점 멀어지더니 멀리 보이는 파출소로 향한다.

Scene2. 파출소 - 밤
적막이 흐르는 파출소에서 경찰 해준이 졸고있다가 벌컥 열리는 문소리에 깜짝놀라며 일어난다.

해준
(삼단봉을 찾으며) 뭐야

해준이 정수기에서 커피를 타서 은주에게 다가가 건넨다.

해준
많이 놀라셨네요. 커피 한 잔 하시죠. (노트를 꺼내며) 실종자랑 어떤 관계시라고 하셨죠?

은주
음메이트요.

해준
(노트에 적으며) 혹시 실종자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가요?

은주
아니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이상행동을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은주
이상행동?

해준
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다던가

은주
이해 안 되는 행동

해준
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다던가

Scene3. 집 - 낮
토스터기 토이마가 탁탁 탁탁 울리다가 식빵이 튀어 오른다. 은주가 방에서 나와 빵을 그릇에 담고 냉장고에서 주유와 잼을 챙겨 식탁 위에 올려둔다. 이어 창문을 열다 말고 소리를 지른다.

은주
창문 밖에는 물에 젖은채 산을 바라보고있는 연우가 서있다.

은주
초금 뒤 두사람이 식탁에 앉아 간단한 식사준비를 한다.

은주
(컵에 담기있는 우유에 커피를 붓는다. 이어 연우의 컵에 우유를 붓는다) 언니 무슨일 있어?

연우
...

은주
작업이 잘 안돼?

연우
약을을 봤어

은주
응?

연우가 꿈에 대해 설명하자 뿐연 꿈속의 모습이 보인다.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 (low G, high G) 하얀 화면에 손 그림자가 나타나 화면을 가린다. 검은 화면에 불빛들이 보이고 연우의 눈동자만 나타난다.

연우
세상의 모든것이 무거워지는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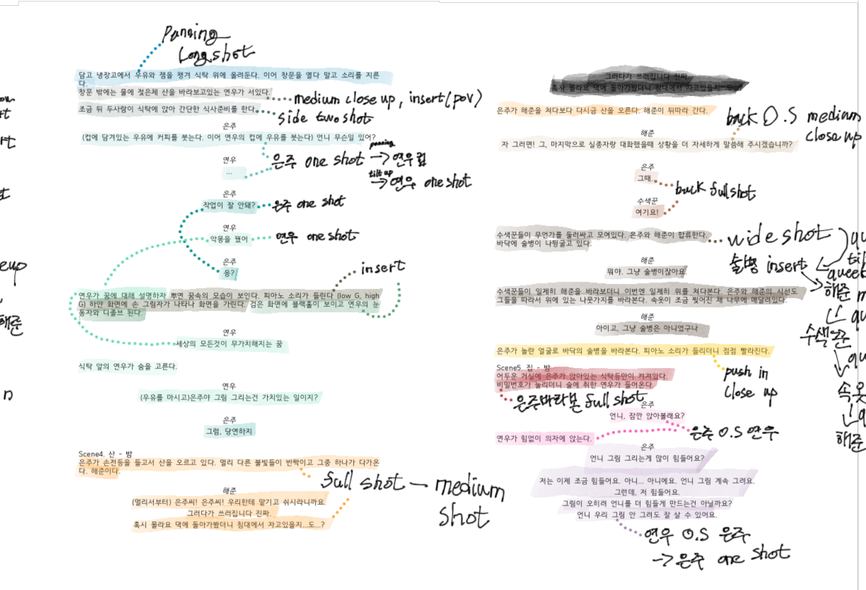
식탁 앞의 연우가 숨을 고른다.

연우
(우유를 마시고)은주야 그림 그리는건 가치있는 일이지?

은주
그럼, 당연하지

Scene4. 산 - 밤
은주가 손전등을 들고서 산을 오르고 있다. 멀리 다른 불빛들이 반짝이고 그중 하나가 다가온다. 해준이다.

해준
(멀리서부터) 은주씨! 은주씨! 우리한테 맡기고 쉬시라니까요.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진짜.
혹시 올라요 덕에 돌아가셨더니 집대에서 자고있을지 도...?



은주가 해준을 쳐다보다 다시금 산을 오른다. 해준이 뒤따라 간다.

해준
자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실종자랑 대화했을때 상황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그때...

은주
어기요!

수색꾼들이 무언가를 들려봐고 모여있다. 은주와 해준이 합류한다. 바닥에 술병이 나뒹굴고 있다

해준
뭐야, 그냥 술병이잖아요

수색꾼들이 일제히 해준을 바라보더니, 이번엔 일제히 위를 쳐다본다. 은주와 해준의 시선도 그들을 따라서 위에 있는 나뭇가지를 바라본다. 속옷이 조금 찢어진 채 대롱대롱 매달려있다.

해준
아아고, 그냥 술병은 아니었구나

은주가 놀란 얼굴로 바닥의 술병을 바라본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다니 점점 빨라진다.

Scene5. 집 - 밤
어두운 가실에 은주가 앉아있는 식탁등에만 켜져있다.
바닥면부터 놀라더니 술병 최한 연우가 들어온다.

연우
언니, 잠깐 앉아볼래요?

연우가 힘없이 의자에 앉는다.

은주
언니 그림 그리는게 많이 힘들어요?

저는 이제 조금 힘들어요. 아니... 아니에요. 언니 그림 계속 그려요. 그런데, 저 힘들어요.
그림이 오히려 언니를 더 힘들게 만드는건 아닐까요?
언니 우리 그림 안 그려도 잘 살 수 있어요.

연우
언니 그림 그리는게 많이 힘들어요?

은주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아니, 아니에요. 언니 그림 계속 그려요.

연우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low G, high G)점점 빨라지더니 슈베르트 마왕이 연주 된다.

Scene6. 산 - 밤
은주가 산을 달려 오른다.

은주
미안해 언니. 내가 미안해...

연우가 사과 하는 모습과 은주가 사과는 모습이 연신 교차 된다.
낯선 목소리에 은주의 발걸음과 음악이 멈춘다.

노인
아니에요.

은주가 주변을 살핀다. 산위에서 긴 치마에 구두를 신고 앉은 실루트 위에 긴 카디건을 걸친 여성이 은주를 내려다 보고 있다.

노인
(눈을을 닦으며)저... 혹시 근처에서 제 또래의 여자 못보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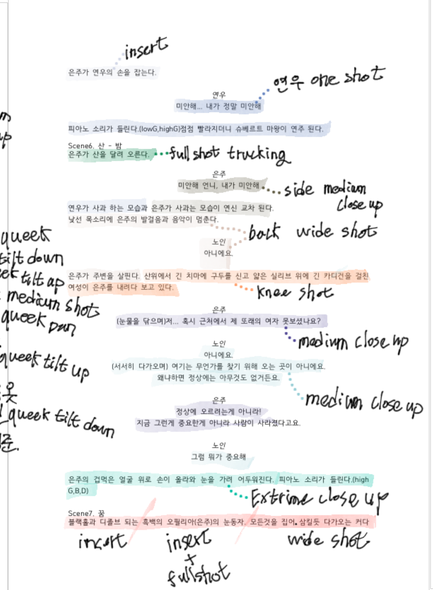
노인
아니에요.
(서서히 다가오며) 여기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은주
정상에 오르려는게 아니라?
처금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사람이 사라졌다고요.

노인
그럼 뭐가 중요해

은주의 겁먹은 얼굴 위로 손이 올라와 눈을 가린 어두워진다.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high G,B,D)

Scene7. 꿈
블랙홀과 다름보 되는 흑백의 오필리아(은주)의 눈동자. 모든것을 집어 삼킬듯 다가오는 커다



한 빛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하얗고 뿌연 연기속에 은주의 실루엣이 보인다. 거 멀리 연우의 모습이 보인다. 연우를 향해 달려가 껴안는다. 껴안은 모습이 마치 산 봉우리 같다.

Scene8. 경찰차 안 - 아침
해준의 기침소리에 은주가 일어난다.

해준
아,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다 기절한다고 했잖아요.
기절하셨어요. 기억 나세요?
실종수색하다 실종자를 만들뻔했어요 아주.
아까 그 핸디도 사실 근처에서 젊은 부부가 술마시고 야산에서

은주
거기요.

해준
네?

은주
아저씨는 왜 경찰이 되셨어요?

해준
네? 아 저는 뭐... 다른사람 도와주는게 좋더라고요. 탐정, 추리 뭐 그런것도 좋아하고
그냥, 경찰 멋있잖아요?

Scene9. 집앞 - 아침
은주의 집 앞에 경찰차가 선다.

해준
실종자 수색은 우리가 마저 할테니까 일단 들어가 좀 주무세요.
멀써 실망하지 마시고. 저 산맥이 다 산이니까 차근 차근 찾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찾을 겁니다.
저희가 찾으면 바로 연락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해준의 차가 떠나고 은주가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들어간다.

Scene10. 집 - 아침
은주가 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서 연우의 방문을 연다.
연우의 방은 울긋과 뿌 등이 널브러져 있고 산을 그린 유화가 이젖에 놓여있다.
은주가 그림을 들고 거실로 나와 한쪽 벽에 걸어도 두길을 들어선다.
바닥에 들어 떨어진다.

insert

back kale shot

insert
×3

medium shot

O.S full shot

medium shot

close up

medium close up

medium close up

back

wide shot

wideshot

insert ~ O.S 방안